

꽃밭에 얽힌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는 서울이라 해도 도심지를 빼면 전원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다. 초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명륜동에서도 조금만 걸어가면 약수터가 있는 아담한 산자락에 안길 수 있었다.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지라, 우리들은 틈만 나면 그 산에 올라 이런저런 놀이를 즐겼다.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하고, 개미를 잡아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만든 칼로 싸움을 하기도 했다.

내가 꽃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데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놀다가 조금 신기하게 생긴 들꽃을 발견하면 손바닥만한 우리 집 마당에 옮겨 심고는 했다. 서툴게 옮겨 심은 들꽃들은 대부분 죽어버려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만 빚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린 마음에 꽃을 사랑한답시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내가 가졌던 가장 큰 꿈은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었다. 방들을 여유 있게 쓰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러 가지 꽃들을 맘껏 심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 꿈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불광동에 얻은 새 집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 때까지 살던 집에 비하면 대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꽃을 심을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우리 식구들은 이런저런 나무와 꽃들을 닦치는 대로 심기 시작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다섯 식구가 모두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각자가 경쟁적으로 이것저것 구해다 심었다. 나무 올라타기도 만들어 보고 덩굴도 올려보고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한꺼번에 모두 해본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심다 보니 몇 년 가지 않아 더 이상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마당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 때의 무질서했지만 아름다웠던 우리 집 마당을 그리워한다. 솔직히 말해 세련미라고는 전혀 없었으나, 내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특히 여름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후 햇볕을 받아 반짝거리던 채송화의 투명하고 예쁜 빛깔을 잊을 수 없다. 향기를 맡기 위해 얼굴을 갖다 댔을 때 느꼈던 반쯤 핀 장미의 부드러운 감촉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러나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꽃밭을 가꾸는 즐거움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다. 더군다나 학교 일과 가정 일로 바쁘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한 동안은 꽃밭이라는 말 그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았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사회과학대학이 현재의 위치인 16동으로 이사해 오면서 갑자기 꽃밭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 건물 뒤쪽에 상당한 크기의 공터가 버려져 있듯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집이 아닌 학교에서 정원을 가꾼다니 이상하게 들릴 법도 하지만, 어디인들 상관이 있으려하는 생각으로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공사가 끝난 직후라 시멘트 덩어리, 철근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더군다나 일을 시작한 때가 이른 봄이어서 얼어붙은 땅을 파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내 조교가 언 땅을 파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는데, 선생이 시킨 일인지라 불평 한 마디 못하고 그 힘든 일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손바닥만한 땅을 정리해 수선화와 튜립을 심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척박한 땅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닦치는 대로 구해다 심었다. 그리고 주변의 땅들을 정리해 꽃밭의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비 오듯 땀 흘리며 돌들을 파냈고, 역한 냄새를 참으면서 거름을 뿌렸다. 그러나 내

꽃밭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꽃밭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 나갈 무렵, 갑자기 사회과학대학 뒤편의 공터에 멀티미디어 동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내 꽃밭 주위에는 공사장 울타리가 세워져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 일년 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니 6층 건물이 햇빛을 막아 그 터는 하루 종일 그들이 지는 어두운 곳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린 온갖 유독물질로 인해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꽃밭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온갖 식물들을 구해다 심어 보았으나 번번이 죽어버렸다. 햇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고사리 같은 음지식물을 심어보니 습도가 맞지 않아 모두 죽어버렸다. 고사리는 습기가 많아야 하는데 그 땅은 모래땅이라 습기를 전혀 머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독물질까지 남아 있어 대부분의 식물들이 며칠 가지 않아 시름시름 말라죽고 말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사회대 건물 쪽으로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는 움푹 파인 땅을 개간하는 것밖에 없다고 느꼈다. 다행히 그곳에는 햇별이 하루 한 시간 정도 비쳐, 그 점에서는 예전의 터보다 더 나왔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곳에 그런대로 예쁜 야생화 꽃밭을 만들 수 있었다. 은방울꽃, 금낭화, 매발톱, 새우란, 자란, 나리꽃, 초롱꽃, 할미꽃, 노루오줌 등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제법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연약한 식물들을 마구잡이로 밟아 짓이겨놓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꽃밭이니 조심해 달라는 팻말을 붙여 놓아도 별 소용이 없었다. 언젠가 한번은 에어컨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꽃밭의 일부를 완전히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적도 있다.

요즈음도 꽃밭에 담배꽂초나 휴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 부근에 큰 쓰레기통을 놓아두었는데, 왜 하필이면 꽃밭에다 내버리는지 그 심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대학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분이 한층 더 언짢다. 우리 학교 학생이면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데까지도 신경을 쓸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고 살기로 결심했다. 쓰레기는 보는 대로 주우면 되는 것이고, 야생화란 어차피 사람들 발에 짓밟히며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어떤 야생화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꺾여진 가지 옆으로 새 순을 틔워 나를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도 생각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야생화를 보면 가슴이 시린 것은 어찌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은퇴한 다음 이 꽃밭을 가꿔줄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아무리 야생화라 하더라도 가끔 잡초를 뽑아주는 등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은퇴한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지금으로선 언젠가 우리 사회과학대학에 나만큼 꽃밭을 좋아하는 교수가 한 명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 조그만 꽃밭이 나에게 늘 근심거리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애물단지라는 말은 아니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 자연히 걱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아주 좋아하면 늘 그 사람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나는 이 꽃밭이 너무나 좋다. 꽃밭 안에 들어가 꽃들을 들여다 볼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낀다. 내 꽃밭 곁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눠 가졌으면 한다.

